



# 식량과 비료

-2023년 2월호-

# 식량과 비료

2023년  
2월호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 비료 관련 동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6. 무기질 비료 우수성 홍보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소개



##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1 회원사 동정

### □ 남해화학(주)

○ 토소실리카 합작 토소남해실리카, ‘친환경 타이어용 프리미엄 실리카’ 첫 출하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계열사인 남해화학이 일본 합성 실리카 종합회사인 토소실리카(TOSOH SILICA)와 합작해 설립한 토소남해실리카(TOSOH NAMHAE SILICA)가 지난 13일 전남 여수시 산업단지 내 생산 공장에서 ‘친환경 타이어용 프리미엄 실리카’를 첫 출하하였다.

실리카는 모래로부터 추출한 고순도 규산나트륨을 가공해 만든 제품으로, 고무 제품의 보강 충전제, 도료·잉크의 광택 제거제, 치약 연마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된다. 특히 자동차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로서 타이어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크게 높이고 회전저항을 줄여 자동차 연비 향상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효과가 있다. 또한 높은 친수성으로 젖은 노면에서의 타이어 제동 성능을 향상시킨다. 남해화학은 토소실리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타이어 제조사의 제품 적용 평가를 통과하고 타이어용 실리카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토소남해실리카에서 생산하는 실리카는 앞으로 전량 세계적인 타이어사에 납품되어 고기능성 친환경 타이어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하형수 남해화학 대표 이사는 “이번 타이어용 실리카 시장 진입은 토소남해실리카는 물론 남해화학, 토소실리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남해화학은 실리카 사업 외에도 반도체용 소재 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민 실익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2023.2.14. NH농협 보도자료

### ○ 농자재값 인하·신제품 개발...“농가경영 안정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는 7일 경기 여주 농우바이오 연구소에서 ‘2023년 농협 제조부문 계열사 현장경영’을 진행했다. 이날 제조 계열사들은 농자재 가격 인하,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농가 지원 계획을 내놨다. 남해화학과 농협케미컬도 ‘월별 원료 도입현황 분석’ 등을 도입해 자재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이와 함께 남해화학은 루마니아·이탈리아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 국내 농가 공급용 비료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루마니아에 비료 500t을 수출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불거진 유럽 비료시장 위기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를 활용해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농협케미칼도 올해 2400억원 규모로 전국 농·축협 계통공급용 농약을 미리 주문 받는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인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 2023.2.8.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주)조비

### ○ 애경케미칼-조비, '친환경 비료 코팅용 수지' 개발...완효성 비료 양산

- '작물 생육 시기 따라 양분 조절' 완효성 비료에 적용
- "친환경 소재와 기술 연구개발 강화해 포트폴리오 강화"

애경케미칼은 완효성 비료 제조업체 주식회사 '조비'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완효성 비료'를 개발해 양산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완효성 비료는 작물의 생육 시기에 따라 필요한 성분량만큼만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제품으로, 표면을 특수한 물질로 코팅해 용해 속도를 늦추는 형태를 띤다. 제품의 특성상 코팅제의 수분 투과도와 안정성, 환경 친화성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애경케미칼과 조비는 바이오 유래 원료를 사용한 코팅 수지를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비료를 공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미국 농무부에서 부여하는 바이오 소재 기반 'USDA Biopreferred' 인증도 취득할 계획이다.

양사의 협력은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완효성 비료 시장을 넓혀나가는 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앞으로 생분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완효성 비료 코팅용 수지 개발에도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제품 출시와 사업화 방안도 논의한다.

※ 2023.1.27. 이데일리 기사내용 인용

## □ (주)팜한농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 친환경 분해 과학 ‘에코물라’ 출시

- 국내 최초로 광분해 완효성 비료 개발해, 올해 1월부터 공급...해외 특허 등록 추진



LG화학의 농업사업 자회사인 팜한농은 친환경 분해 과학 브랜드 ‘에코물라(ecomula)’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팜한농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광분해 완효성 비료에 적용된 기술을 에코물라라고 이름 짓고 시장 개척에 나선다. 에코물라는 ‘친환경적인(ecological) 공식(formula)’이라는 의미로 지속 가능한 농업 솔루션을 제공할겠다는 팜한농의 의지를 담았다. 팜한농은 LG화학과 함께 2016년부터 완효성 비료 광분해 기술을 개발해왔다. 완효성 비료는 작물 생육에 맞춰 영양분이 천천히 녹아 나와 노동력 및 사용량 절감 효과가 탁월하지만 비료 코팅에 사용되는 합성수지가 작물 수확 후에도 분해되지 않아 농경지에 남거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단점이 있다.

에코물라는 광촉매 융합 기술과 피복 분해 기술의 집약체로, 에코물라 적용 비료는 작물 수확 후 햇빛에 노출되면 코팅 재료가 안정적으로 자연 분해된다. 팜한농은 ▷광분해 한번에촉조 ▷광분해 한번에아리키 등 에코물라 적용 비료를 올해 1월부터 팜한농 비료 대리점과 농협에 공급하고 있다.

팜한농은 완효성 비료 광분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술제품 인증, 신기술(NET)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해외 비료 시장을 겨냥해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서 특허 등록을 추진 중이다.

조요셉 팜한농 비료사업담당은 “에코물라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광분해 완효성 비료는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며 비료 시장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2.9. 헤럴드경제 기사내용 인용

## □ (주)풍농

### ○ 친환경 엔피코 완효성비료

- 막힘없는 촉조시비! 안정적인 양분용출의 완효성 효과! 비료대 절감!



12-5-5+2+0.2, 규산6, 석회15



30-6-8(100%울코팅)



22-9-10+1

(주)풍농 완효성비료는 고령화와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의 농업현장에 대한 부담감 해소와 만족도를 높여줄 제품으로 비료대 절감 등 경제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주)풍농은 다양한 농도의 완효성 제품 출시로 농업인 비료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질소기준 저농도 '롱런모든작물(12-5-5+2+0.2, 규산6, 석회15)' 중농도 '일회만290(22-9-10+1)', 고농도 '올코팅하이롱(30-6-8, 100% 올코팅)' 완효성비료는 1회 시비만으로 비효가 3~4개월까지 지속 되기 때문에 벼(수도)와 원예작물 재배시 별도의 웃거름(가지거름, 이삭거름 등)을 시비하지 않아도 작물의 수확기까지 양분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시비량 및 시비횟수 절감과 작물생육향상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엔피코 완효성비료는 균일한 입도와 단단한경도(강도)로 측조시비 이양 등 기계시비시 막힘없고 시비 작업성이 우수하고 균형시비 및 양분이용효율이 뛰어납니다. 국내 최초로 토양개량성분을 다량 함유한 저농도 완효성비료 '롱런모든작물'은 고토(2%), 붕소(0.2%) 등 미량성분의 고른 함유로 작물 생육향상, 생리병예방 뿐만 아니라 다량의 규산(6%), 석회(15%)를 함유하여 품질향상, 도복 예방, 지력증진, 기상재해 및 고온, 폭염 등 불량환경에 대한 내성증대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수량 증수에 효과적입니다.

초기생육 향상이 뛰어난 중농도 '일회만290'는 막힘없는 측조시비를 위해 입자 경도를 개선하여 완효성, 속효성 양분이 벼 생육기간내 과부족없이 안정적 공급으로 작물 생육향상, 병충해 저항성 향상, 고토함유로 미질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100% 올코팅으로 모든입자가 코팅되어있는 신제품 고농도 완효성비료 '올코팅하이롱'은 이양 작업시 측조시비(기계시비 등)시 막힘없고 균형시비가 가능하며 양분흡수이용율 향상 및 농작업성이 우수합니다. 올코팅하이롱은 2022년 공인기관 시험결과 수량 6~8%증수, 미질우수 등 고품질 쌀 생산과 전국 시험포 운영결과 측조시비 작업성 우수, 비효만족, 경제성이 뛰어나 비료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완효성비료입니다. (주)풍농은 지속적으로 시비노력절감형 고효율, 기능성비료 개발, 출시로 농업인 소득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양질의 비료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풍농 자료 인용

## □ (주)한국협화

### ○ 50년 비료개발 노하우로 액비시장 본격 진출

- 아미노산 특허물질 활용한 신제품 15종부터 우선 출시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토양처리제품 전문기업 한국협화는 식물생리활성제 시장이 국내외 친환경자재로 부상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개발한 신규 특허물질을 활용해 15종의 다양한 액비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한 액비제품들에는 식물생리활성소재, 면역증강 사료첨가제에 이어, 세계 최초로 동물혈액을 활용해 효소분해한 복합아미노산 화장품소재를 개발한 아미노랩의 특허기술과 최신설비를 적극 활용했다.

기존 액비가 핵심원료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원료에 의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협화가 선보이는 신제품들은 순수 국내 기술개발로 생산한 신개발 원료와 최신 설비를 사용해 제조되고 있다. 무늬만 한국산인 기존 제품들과 달리 농가 생산성에서 확실히 차별화하면서 국내 품질이라는 신뢰성까지 더했다. 한국협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농법을 추구하는 미래 농가에 적합한 제품들 위주로 엄선했다. 연이어 10~20여종의 신개발 제품들을 속속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오랫동안 제품개발 노하우를 가진 토양처리제 시장의 강자 답게 자체개발로 생산한 입상 유기농업자재 토양처리제품인 ‘임팩트 과립’도 새롭게 선보인다.

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효과적인 신개발 비료의 선택과 사용의 중요성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협화가 액비시장에 본격 진출한 이유다.

한국협화 이형식 전무는 “반세기 비료개발 노하우를 집약해 50년전 창업한 초심으로 100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액비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며 “최신 원료와 기술로 무장한 제품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한국농업의 미래 50년을 대비해 진정한 100년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50년전 건강한 흙을 만들기 위해 태동한 한국협화는 토양개량제를 시작으로 지난 반세기동안 끊임 없이 변화하며 오늘날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종합비료회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 2023.2.15. 데일리한국 기사내용 인용

## 2 협회 주요 활동

- 협회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2.10)
- 2023년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사업심사위원회 회의 개최(2.8.)
- 국제 원자재 수급 상황 및 수출 확대 관련 현안 수시 대처(농식품부, 농협)
- 비료 수출 확대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참석(2.22)
- 회원사 및 농업전문지 기자 소통 강화

## 3 무기질비료 관련 동향

-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 13% 인하...정부 가격보조도 유지

농협(회장 이성희)이 농업인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가격 보조사업을 계속 시행한다고 밝힌

만큼 지난해 높아진 자재비로 힘들었던 농가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농협은 최근 요소 등의 일부 원자재가격 하락세를 반영해 무기질비료 농업인 판매기준가격을 2022년 대비 평균 13% 인하했다. 특히 농가 사용량의 약 50% 수준을 차지하는 요소(그레놀·프릴)비료, 21복합비료, 맞춤16호 비료는 평균 20% 인하여 영농철 농가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지난해 무기질비료 급등으로 농협과 함께 시행했던 보조사업을 올해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지자체·농협과 함께 2021년 8월 대비 무기질비료 가격인상차액의 80%를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이 평균 13% 인하됐지만 농업인 영농안정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가격인상차액의 80%를 연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가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2020~2022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결정됐다. 무기질비료 과다사용에 따른 토양산성화 및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다만 신규 농민과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가, 작목을 전환한 농가 등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표준소비량 기준으로 소요물량을 산출해 보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와 농협은 보조사업 시행에 따라 무기질비료 구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으면 농가의 실제 무기질비료 구입가격은 1t 당 평균 67만3000원으로, 2021년 8월 대비 15% 인상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23년 정상가와 견주면 인하효과는 31% 수준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하되고, 정부·지자체·농협의 지원사업이 지속 시행되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이라며 “국제 원자재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인하요인 발생 시 즉각 반영하는 등 비료 가격을 추가로 낮추는 한편 비료업체의 원자재 수급상황 등을 주시해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3.2.10.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일본도 작년 농자재값 ‘사상최고’ 기록

- 농수성, 농업물가지수 발표, 생산자재 2년새 16.6% 올라
- 비료·사료 각각 30%·38% ↑

일본의 지난해 농자재값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31일 2022년 농업물가지수를 발표했다. 2020년을 100으로 설정하고 가격을 비교한 지수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 생산자재지수는 116.6이었다. 2년 만에 자재 물가가 16.6% 올랐다는 의미다.

이같은 수치는 통계가 시작된 195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농수성은 설명했다. 1년 전과 견주면 9% 이상 오른 셈이다.

가장 큰 폭으로 지수가 상승한 것은 비료와 사료로 각각 130.5, 138에 달했다. 가격 역시 전년 대비 각각 27.1%, 19.4% 상승했다.

특히 2022년 12월 생산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분석이다. 12월 생산자재가격지수는 121.6으로 전월보다 0.6% 상승했고,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0.4% 뛰었다. 농수성은 생산자재가격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높은 현상이 31개월 연속으로 일어났다고 전했다.

그중에서도 배합사료비지수는 149.8에 달해 전년 같은 달과 견줘 24.1% 상승했다. 농수성은 “2022년은 중국 등에서 배합사료 수요가 급증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의한 곡물 유통량 감소, 기록적인 엔저 등이 겹쳐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12월 비료비 지수 역시 153.3으로 전월보다 2.5%, 전년 같은 달보다 40.9% 상승했다. 주요 원료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2022년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광열동력비의 경우 원유가격 영향으로 지수 127.3을 기록해 전년 대비 13.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재비 급등 속에서도 농산물가격지수는 101.4에 그쳤다. 전년보다 0.6% 오른 수준이다. 쌀은 오히려 9.7% 낮아진 80을 기록했다. 자재비는 상승했지만 농산물로의 적절한 가격 전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농업계 안팎에서 “농산물 가격에 생산비 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농수성 발표에 대해 일본 농업계는 “비용 증가에 고통받는 농가의 실태가 새롭게 드러난 것”이라는 반응이다. 아울러 비료와 사료 등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을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일본의 식량안보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일본 농업계 전문가는 “자재·사료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생산비 전체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낙농가 등에서 이농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이미 1분기에도 배합사료 가격 급등 보전책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다른 자재를 포함한 폭넓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2.8.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농식품부)비료 품질단속 강화로 불량비료 유통 차단에 나선다

### ○ 유기질비료 등 생산단계 품질검사 강화, 온라인 판매제품 점검 확대

- (품질검사)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등) 및 토양개량제(석회·규산질 비료) 등 품질검사 강화
- (보증표시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보증표시 사항(보증성분량 및 원료투입 비율 등) 준수 여부 중점 점검

※ 2023.2.15. 농식품부 보도자료

## □ (농식품부)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로 농산업 혁신 동력 창출

### ○ 2023년 전년(118억불) 대비 14.1% 증가한 135억불(농식품 100, 전후방산업 35) 달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3일(목)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2023년 케이-푸드[K-Food]+ 수출 135억 불(농식품 100, 전후방산업 35)달성을 위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였다.

#### ◆ (농기자재) R&D 강화 등 시장 경쟁력 강화

비료는 수출업체의 원재료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자금(6천억원) 지원 대상품목\*을 늘리고, 농약에 대해서는 수입 원재 전체에 대한 관세인하(2~8% → 0)를 유지한다.

\* (현재) 9개(요소, 염화칼륨, 인산 등)+추가 3개(유황, 황산, 황산암모늄)

#### ◆ 수출 확대 추진체계 정비

케이-푸드[K-Food]+ 수출확대를 위해 기재부·산업부 등 관련부처와정부내 원팀을 이루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를 본격가동(23.1.26.)한다.

- 추진본부는 업계와 수출 분야별\* 규제개선·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업계 애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 농식품반, 스마트팜, 농기자재반, 동물약품반, 해외농업기반시설반 등 5개반으로 구성  
농식품부 내 케이-푸드[K-Food]+ 금융·투자 지원단을 통해 민간·정부 자금이 케이-푸드[K-Food]+ 수출업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농식품부 내 수출·스마트농업·식품·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7개 분야로 구성

- 농식품 신산업(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분야 정책자금 총 2.2조원(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 푸드테크·그린바이오 펀드 1천억원, 농식품수출·스마트농업 펀드 각 200억원 등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혁신성장펀드(금융위, 3조원 중 일부)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2023.2.23. 농식품부 보도자료

## □ (한국무역협회)“수출 기업 42%, 영업 이익으로 가까스로 대출 이자 감당”

○ ‘제5회 무역산업포럼, 고금리 시대의 수출업체 금융 애로 진단과 과제’ 개최

- “지난 2년간 기업 대출 금리는 약 3% 상승하며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 32조원 증가”

\* 기업 대출 금리 인상 추이(자료: 한국은행) : ‘21.1월(2.69%) → ‘22.12월(5.56%)

\*\*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자료: 한국은행, 예상치) : ‘21년(42.4조원) → ‘22년(74.7조원)

- “수출 산업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 어려워... 고금리 위기 대책 마련으로 수출산업생태계 유지해야”

- “협회, 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출 기업 대상 금리 3%대의 저리 융자 사업 시행”

※ 2023.2.23.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 4 농정 이슈

### □ (농식품부)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 일석다조(一石多鳥) 효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지속해서 떨어져 오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으로 1,1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 전략작물직불제 개요 >

◇ ‘23년부터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시 직불금 지급

- \* (동계) 식량작물·조사료(기존 논활용직불) 50만원/ha,  
(하계) 논콩·가루쌀 100만원/ha, 하계 조사료 430만원/ha 지급  
(이모작) 동계 조사료·밀 - 하계 가루쌀·콩 이모작 재배시 250만원/ha

※ 2023.1.25. 농식품부 보도자료



## □ (통계청)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2년 1인당 연간 양곡(쌀 + 기타양곡) 소비량은 64.7kg으로 전년대비 0.5% 감소  
 - 쌀 소비량(56.7kg)은 전년대비 0.4% (0.2kg), 기타양곡(8.0kg)은 2.4% (0.2kg) 감소

-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30년전(1992년 124.8kg)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1인당 양곡 소비량(kg) : ('19) 67.4 → ('20) 66.3 → ('21) 65.0 → ('22) 64.7
  - 1인당 쌀 소비량(kg) : ('19) 59.2 → ('20) 57.7 → ('21) 56.9 → ('22) 56.7
  - 1인당 기타양곡 소비량(kg) : ('19) 8.2 → ('20) 8.7 → ('21) 8.2 → ('22) 8.0

※ 2023.1.27. 통계청 보도자료

## □ (통계청)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5.7(2015년=100)로 전년대비 2.3% 하락
  - 청과물(4.2%), 기타농산물(6.1%)이 상승하였으나, 곡물(-12.1%), 축산물(-5.2%) 하락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5.2(2015년=100)로 전년대비 12.7% 상승
  - 재료비(32.2%), 경비(19.9%), 기계용품(4.8%) 등이 상승
-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0.4(2015=100)로 전년대비 13.4% 하락
  - 농가판매가격지수(-2.3%)는 하락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12.7%)는 상승하여 농가교역조건 지수는 전년대비 13.4% 하락

※ 2023.2.3. 통계청 보도자료

## □ (농식품부)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강화로 정확도·신뢰도 높인다

- 공공기관 정보 등 연계·확대로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 제고
  -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등록정보 변경 추진
    - \* 공익직불 신청 및 이행점검 정보 등을 활용하여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 \* 주민정보(G4C), 토지대장, 농지대장 등 공공기관 시스템과 연계·확대로 등록정보 변경
    - \* 16개 재배품목 표본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 2023.2.14. 농식품부 보도자료

## □ (농촌진흥청)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한다

- 돼지 배출계수 8종 추가 개발로 축산분야 총 14종... 2023년부터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충남대학교 안희권 교수팀과 함께 돼지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발생량을 산정할 때 필요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 8종을 개발했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정량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나,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한다.

나라마다 가축 사육 환경과 사양기술이 달라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려면 국가 고유



# 식량과 비료 -2023년 2월호-

배출계수가 필요하다.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없는 나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배출계수 기본값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나라별 가축의 성장단계를 고려치 않고 일괄 계산된 값이라는 한계가 있어 세계 여러 나라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돼지 소화 과정 메탄 배출계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기본값을 활용해 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돼지 장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양을 성장단계와 성별에 따라 배출계수 8종을 개발했으며,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최종 등록을 마쳤다. 새로 개발한 고유 배출계수를 이용하면, 더 정확한 산정이 가능해지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배출계수 기본값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배출량이 약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국내 축산분야 온실가스 국가 고유 배출계수는 한우 3종, 젓소 3종에 이번에 개발한 돼지 8종을 합해 총 14종이다. 국가 고유 배출계수는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부터 활용될 예정이다.

※ 2023.1.31.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 □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단위 : 천톤, 누계)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생 산 량	2,319	2,142	2,397	2,039
출 하 량	2,218	2,054	2,429	1,860

※ 협회 회원사 기준

### □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입가격 및 환율

(단위 : \$/톤, 원)

구분	2021년		2022년	
	평균	4분기	상반기	하반기
암모니아	546	691	957	936
D A P	552	1,004	948	859
염화칼륨	317	401	633	965
환 율 (매매기준율)	1,144	1,183	1,232.16	1,350.74

※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인용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6 무기질비료 우수성 홍보

### □ 종전 화학비료를 무기질비료로 명칭을 바꾼 이유

비료는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한 물질을 총칭하며, 주로 요소, 복합비료, 원예용 비료 등 무기 형태의 비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무기질비료는 작물 생육증진 및 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무기질비료의 원료는 공기, 광석 등 천연재료로 이를 채취 및 가공하여 질소, 인, 칼륨 등의 식물 필수양분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무기질비료는 양분 조절이 쉽고 시비가 편리하기 때문에 과잉시비가 아닌 적정시비를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기질비료나 부산물비료나 식물이 흡수하는 영양소는 무기 형태인 이온으로서 양쪽 다 동일합니다.

과거 공기나 자연광석 등 무기질 원료를 이용하여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된 비료가 공급되면서 화학비료라는 명칭이 임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이 장려되면서 관행농업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화학비료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품질이나 안전성 등에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 등을 줄 수 있어 명칭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학비료란 명칭이 비료관리법상 법적 근거가 없고 1980년에도 비료관리법에서 보통비료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농협 등에서는 무기질비료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농촌진흥청 토양비료 용어사전(2012. 12 발간)에 무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무기화합물로 구성된 비료의 총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의 법상, 개념상 구분과 화학비료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료 : 식량안보와 무기질비료 인용

## 7 이달의 주요 인사

### □ (주)풍농 인사 안내(‘23.3.1일자)

- 이동렬 대표이사
- 권병렬 이사

## 8 회원사 제품소개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슈퍼원예S
- 성분량 : 12-6-[8]+2+0.2+6+6
- 특성 및 효과
  - 각종 원예작물에 알맞은 영양소를 모두 포함
  - CAS함유로 내병성 및 품질 향상
  - 고토, 붕소 등 미량요소 함유

## □ (주)조비



- 제품명 : 더존
- 성분량 : 13-6-[8]+2+0.2 (치요다 함유)
- 특성 및 효과
  - 치요다가 함유되어 작물체 내 흡수와 이동/효과 발현이 빠르고 저온에서도 흡수율이 높음
  - 치요다와 2중복비의 상승작용으로 생육 초/중기의 균형적 양분 공급이 가능
  - 황산칼륨(유황) 함유로 농작물의 품질 및 저장성을 높여 신선도 유지에 효과가 좋음

##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는 일이 적어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질소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효과가 큼

## □ (주)팜한농



- 제품명 : 파워성장엔
- 성분량 : [13]-8-[8]+2+0.2 (황산칼리 함유)
- 특성 및 효과
  - 국내 최초, 국내기술로 개발된 질산태 함유 비료
  - 빠른 양분 흡수로 초기생육이 우수
  - 양분 흡수 이용률이 뛰어나 농산물의 조기 수확 및 수확량 증대에 효과가 우수
  - 질산태질소는 저온에서도 흡수가 좋아 저온기 생육이 우수
  - 질산태질소는 칼슘, 고토, 칼리, 아연, 철 등 영양소 흡수를 좋게 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
  - 질산태질소 함유로 하우스 재배 시 암모니아가스 발생을 감소
  - 황산칼리를 함유하고 있어 원예작물 품질 향상에 효과적

## □ (주)풍농



- 제품명 : 풍림모든작물
- 성분량 : 12-5-5, 고토2, 붕소0.2, 규산6, 석회15, 유황 함유
- 완효성비료
- 특성 및 효과
  - 작물 생육단계별 안정적인 완효성 양분공급, 생육향상
  - 유황함유로 과수, 원예류의 맛, 때깔 향상
  - 규산, 석회 다량함유로 지력증진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
  - 완효성, 저인산형태로 제조되어 이끼, 괴불 발생 예방
  - 완효성비료로 막힘없는 측조시비, 균형시비 가능

##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땅심명가
- 성분량 : 21-7-11+1+0.1(규산, 칼슘, 미량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 함유한 고농도 21 복합비료
  - 토양분석자료를 근거로 개발된 고농도 맞춤비료
  - 과수, 원예작 밀거름으로 사용할수 있는 다목적 비료

## □ (주) 세기



- 제품명 : 원샷 감자/무/당근
- 성분량 : 11-7-[8]+2+0.2(황산가리 함유)
- 특성 및 효과
  - 고토, 붕소, 유황, 석회, 규산 등 미량요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좋음
  -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맛, 때깔, 저장성을 높여 주어 과실의 신선도를 높여줌

## □ KG케미칼(주)



- 제품명 : 미생물올코팅
- 성분량 : 28-5-7+1+0.1
- 특성 및 효과
  - 미생물 함유로 염류피해 및 병충해 경감에 도움
  - 올코팅으로 미분이 발생하지 않아 측조시비 탁월
  - 다량 질소 함유로 시비량을 감소시킨 비료

※ 무기질비료 사용 안내서 인용



# 식량과 비료

-2023년 2월호-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